

## SERMON 31 JANUARY 2016

1 Corinthians(고린도전서) 13:1-13, Luke(누가복음) 4:21-30

옛날...옛날에, 밤하늘 위에 있는 별들이 수정 같이 맑았고, 잠자고 있는 땅 위에서 빛의 초점들이 흩어져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친숙하게, 인식 되며 위로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이 빛났고 나무들과 숲들에 순백색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잔디는 바람에 속삭이고 밤에 곤충들은 지저귀입니다. 때때로 어떤 생물이 나뭇잎과 잔디를 놀리 뭉개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고 물을 마시기 위한 시내 길을 그것이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요함에 걸려 있었고 불에서 나온 불씨들은 느긋하게 나선형 위쪽으로 올라갔고 공기 중에 사라집니다. 천천히, 멀리에서, 지평선은 어둠으로부터 처음의 빛이 나타나며,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커집니다. 달은 사라지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타는듯한 붉은색과 금빛은 새로운 색깔들과 함께 땅을 색칠합니다. 곧 인간의 삶의 소리 -기침, 기지개, 서로 인사하는 소리와 새로운 날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랫동안 이와 같았습니다; 물론 항상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한동안 바람이 분노 했습니다, 폭풍우들은 번개가 타오르는 것처럼 충돌하고

하늘에서 갈라집니다. 때때로 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들은 역사의 이치 안에서 알려지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저기로 옮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땅 안에 속하고 땅의 징조들이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땅은 변했습니다,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 땅의 모서리 위에 그전에 결코 본적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것들을 입었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그들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신을 가져와서는 그들이 이 땅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신에 순종해야만 했었고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순종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영원히 그들이 원치 않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갈수 있었을 까요?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두려움이 일어 났을 때입니다, 자아를 잃어 버림으로, 땅을 잃어 버림으로, 문화를 잃어버림으로 오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전에 땅의 권리와 전통 위에 격렬한 전투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습니다. 어느 것도 그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상들은 그들의 땅이었던 곳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항상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신들은 파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생식력을 보던 아세라(Asherah), 그들의 땅 그리고 여성들을 빼앗기고 산산이 부서 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역사를 벗어나서 쓰였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단지 희미한 흔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속된 땅은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요일 설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물론 호주건국 기념일입니다. 물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들은

앞부분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야기 일수 있습니다, 상상으로서의 약간의 묘사는 호주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세라를 가질 때까지 일수도 있습니다. 아세라는 사실 몇 세기 동안 아주 많은 곳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일어납니다. 역사는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지배를 할까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가 침묵할까요? 어떤 시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나요? 항상 이야기에는 내부자와, 소외된 자 들 강한 자 와 약한 자 들이 있는듯합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나 같으며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때에, 유대인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 자신 중에 한 명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 그가 하기를 거절한 것-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다른 곳에서, 심지어 그들의 경쟁 상대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기적들을 행사 한 것- 이러 한 것들이 그들이 예수를 이해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었고, 그들이 한동안 자부심을 느꼈던, 요셉의 아들, 지금 그는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선택된 사람으로 생각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민족들이 몸부림 쳤던 그들이 아는 모든 이야기들, 아브라함부터 사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찾을 때까지 사막에서 헤매고 다닌 모세와 미리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만든 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대와 세대 때마다, 안식일과 안식일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저항 에서부터 구원과 정의와 자유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수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들은 엘리야가 도운 사르밧(Zarephath)의 과부의 이야기에 관하여 알았고, 시리아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온 엘리사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 이야기들이 진정한 주요이야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야기 했을까요? 그것은 듣고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으며 그래서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를 죽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 이 문단에서 매우 강렬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하나님의 뒤집어진 왕국으로 뼈대를 잡습니다. 우리는 가난한자들이 부유해지고, 압박 받는 자 들에게 정의가 주어지고, 아픈 자 들이 치유되는 것 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다 내부자들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모든 외부자 들도 염려 하는 것을 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협받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전조였습니다. 누가는 무엇이 거기에서 일어 났었는지 설명하고 이 부분을 강조 합니다, 언덕은 그의 청중들을 위해서 골고다와 함께 연결합니다. 사실 나사렛 근처에는 그 같은 언덕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초점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 드러졌는가 누가 무엇을 계속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대들을 가로질러서 이야기하나 하는 것은 놀랍고 도전적인 것 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오직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쉽지 않나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이야기들,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 세대에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960년대 저의 경험으로는, 아이오나 공동체를 시작한 조지 맥래오드(George MacLeod)는 교회는 현상의 영적 팔이 되고 있었다고 경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역교회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오신 스코트랜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각에 대단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 저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스탠 그랜트(Stan Grant's)의 연설을 들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본 없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연설로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호주에서 원주민이란 무슨 의미인지에 관한 연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통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스탠이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인구의 3%로 구성되어 있고 원주민 교도소 수감자가가 인구의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부자와 따돌림 받는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그 수치들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외 계층들은 너무 자주 갇혀 있습니다. 스탠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억눌려서 아주 어렵게 남겨진 이 나라의 역사적인 것들에 관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루는 것에 관하여 열정과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에 비유 되었습니다, 물론 스탠은 그런 비교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마틴루터킹에 의해서 더 쉽게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평등권운동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탠 그랜트는 이 나라 호주의 복잡성과 그리고 모든 문화의 다른 점들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집혀진 왕국에 관하여 들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나요?



이 나라 호주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울타리 뒤에서 시간의 제한 없이 선고 받고 있는 남성들,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존중도 줄 수 없고 또는 기본적인 시설 외에 어떤 것도 없는 그들에게 희망과 다른 어떤 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너무 자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철조망 뒤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럼 복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이유로 화가 날 가능성은 고사하고, 여기 희망이 없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하기를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한을 둘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사랑을 제한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요청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고린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2 주간 우리는 바울이 이 공동체를 묘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많은 다른 그룹과 문화가 있었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몸 안에도 많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부분은 필요하고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합니다. 고린도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곧 그들의 추한 머리를 들게 만드는 깊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들이 중요한 본질로 돌아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우리가 모두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종종 결혼식에서 자주 읽힙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려움, 배타주의, 무관용

그리고 우월감에 직면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여정의 끝에 도달하지 않는 그러나 계속 가는 중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봤던 이 사랑에 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하트마 간디가 강조했었던 그런 비폭력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나사렛 밖의 성난 무리들을 통해 지나가도록 만든 그것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예수님과 간디의 예를 끄집어 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나는 뭔가 감정적이거나 약한 반응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최고의 통일적인 삶의 원칙으로써 모든 위대한 종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궁극적인 현실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열쇠입니다.”

누가 이 사랑의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에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 사랑을 청하고 선포하는 기관으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통제하길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누구에게 확장되는 것을

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본성에 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찾게 만드는 인간본성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은 사람들의 예상을 계속 뒤집어 버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만들고 다양한 이유로 이방인이 된 듯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사람들의 유혹에 저항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다른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와 사회에 우리가 직면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되고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사회의 바닥에 있는 주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은 쉽지 않고 매주일 마다 편안하게 무언가를 듣는 것만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느끼게 하거나 우리의 힘을 빼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매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몇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것을 받으려고 우리의 삶을 계속 열어 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연령이 다른 연령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포괄성은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세상을 위해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에 충분한 삶, 치유, 활기 그리고 해방 그리고 실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